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 부모건강집단과 부모병약집단 간의 다집단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Middle Aged Male's Intimacy toward Parents and Self-Efficacy of Care-Giving on Their Care-Giving Commitments for Aged Parents: Focused on the Multiple Group Analysis between Subjects with Healthy Parents and Subjects with Unhealthy Parents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연구소
박사과정 · 연구원 이 원 준
교 수 · 연구원 신 성 자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Research Fellow : Won June Lee
Professor · Research Fellow : Sung Ja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
| II. 문헌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e study consists in:(1)the positive direct effects of both individual's intimacy toward parents and individual's self-efficacy of care-giving roles on individual's care-giving commitment; (2)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s self-efficacy of care-giving on individual's care-giving commitment; (3)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unhealthy condition of individual's elderly parents on each causal relationship. For conducting this study, a survey method was used on 318 males with parents at the aged of 45-60, residing in Daegu and KyungPook. In order for subjects to verify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explored. The findings of the study supported the direct, indirect effect and moderating effects, which suggested in research questions. Participants with unhealthy parents showed greater tendency in terms of influencing their intimacy toward parents on care giving commitment than participants with healthy parents did. The above findings claimed our attention in that provided a range of practical implication.

주제어(Key Words) : 친밀성(intimacy), 수발효능감(self efficacy for care giving), 수발헌신(care-giving commitment), 노부모 건강상태(health condition of elderly parents)

Corresponding Author : Won June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E-mail: classicx@empas.com

* 본 논문은 2009년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유병 노인이 크게 증가(박경숙, 2002; 이가옥, 이미진, 2000; 정경희 외, 1998)하면서 노인수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공식 보호서비스의 대체적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Green, 1983; 박경숙, 2002 재인용), 공식서비스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가족의 역할이 존재하고(安達正, 1999; 박경숙, 2002 재인용; Baldock, 1997; Litwark, 1985). 가족수발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또한 여전히 높다. 공식 부양서비스와 가족등의 사적 부양서비스는 이분법적인,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일 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Horowitz, 1985; Moroney, 1980; 박순미, 2008 재인용; Simmon 1985).

우리사회의 노부모를 위한 가족부양의식은 서구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송다영, 2004; 신영선, 2004). 친딸보다는 법률적 딸인 며느리가 오히려 시부모를 위한 주수발자이고, 친아들(남편)은 주변인(marginal member)인 현상은 노부모 돌봄에 대한 우리사회 규범의 일면이기도하다. 가족수발자의 여성 편중현상(송다영, 2004; 윤은경, 조윤득, 2008; 윤현숙, 2001)과 특히 시부모의 수발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역할기대는, 역할분담의 공평성문제 뿐 만 아니라 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그리고 수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Folbre(2007)은 여성의 과중한 수발부담은 가정에서의 노인 수발을 중단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수발자의 노인수발 중단은 시설보호 진입으로 연계되기 쉽다고 피력한 바 있다.

과거 돌봄 노동을 담당했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직업과 가사노동, 육아 그리고 요보호 노인에 대한 수발까지 여성의 손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은 여성에게 큰 부담을 주어 심리적·신체적·사회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조주용, 2004). 취업여성의 노인수발에 관한 남녀 불평등 문제(이위환, 권용신, 2008; 정애량, 1999)는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Folbre(2007)는 돌봄 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 할 때, 가족생활이 더욱 더 공고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부모 수발업무에 중년남성들의 참여는 자신의 노부모에 대한 돌봄 뿐 만 아니라, 과도한 돌봄 역할기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아내)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 노동은 극도의 노동집약적인 행위(Folbre, 2007)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애정과 존중이 전제될 때,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노부모수발은 가족생활을 통해 형성된 사랑, 의무감, 호혜(Folbre, 2007)의 가치와 규범이 전이(spill-over)되는 행위가

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은, 돌봄에 대한 젠더(gender)역할을 초월하여 병약한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속적인 정서적·애정적 유대가 부양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조윤주, 2002; Caffrey, 1983; 이위환, 권용신, 2005 재인용; Circirelli, 1983)에서 논의되어왔다.

애정을 가지고 병약한 노부모를 수발하려고 해도, 수발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 수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도구적 기술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최해경, 문숙재, 정순희, 김은경, 2001)는 수발자의 수발기술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부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부양행동과 애정절회 등의 역기능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모에 애정을 가지고 병약한 노부모를 수발하려는 동기가 강할수록, 수발에 필요한 수발업무에 더 관심을 갖게되고, 실제로 수발업무를 익히려고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돌봄역할에 서툰 편이다.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에 필요한 수발업무 수행능력수준은 노부모 수발현신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와의 애착 및 친밀성이 노부모 수발현신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부모 가족수발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여성수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부 선행연구는 남성 가족수발자를 포함하였지만, 배우자와 성인아들(장영은, 엄기욱, 김정숙, 나카지마 가즈오, 2008) 또는 성인아들과 며느리(박순미, 2008)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분석하였거나, 남성가족수발자의 수가 전체 표본에 극소수(4.5%)에 불과하고 며느리, 딸, 기타가족원을 모두 함께 분석하였기 때문에(윤현숙, 2001), 성인아들의 노부모 수발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병약한 노부모에 필요한 가족수발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인 남성 자녀들이 자신의 병약한 노부모를 보살피는 수발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젠더를 초월한 수발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부모 수발이 자신들의 현실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수발현신의지와 관련요인을 탐색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토대로 5개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노부모 수발현신에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와의 친밀성은 수발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수발효능감은 부모와의 친밀성이 노부모수발현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때 매개역할을 하는가? 넷째, 노부모가 병약한 집단과 노부모가 건강한 집단 간에, 노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그리고 노부모 수발현신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다섯째, ‘노부모 병약여부’는 설정한 각 경로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II. 문헌고찰

1. 젠더를 초월한 중년남성의 가족수발업무 공유의 필요성

가족부양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며느리가 시부모의 신체수발을 포함한 도구적 부양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으며 딸이 그 다음이고, 아들은 노부모 수발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중돈, 1994; 류삼희, 2007; 엄명용, 2001; 우국희, 1997; 윤수경, 1991; 윤현숙, 2001; 윤현숙, 이민홍, 윤은경, 2008; 조병은, 신화용, 2004). 서구에서는 친딸이 노부모의 주수발자(major care-giver)인데, 재미 한국 교포들 사회에서도 딸이 부양자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병은, 신화용, 2004). 친딸보다도 오히려 법률적 딸인 며느리가 시부모의 주수발자이고, 친 아들(남편)은 주변인(marginal member)으로 머물고 있는 현상은 노부모 돌봄에 대한 우리사회의 규범의 일면이기도 하다.

핵가족을 구성하는 성별분업 체계는 맞벌이로 약화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과 양육, 노인부양을 포함한 돌봄 노동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양옥경, 이재경, 김인숙, 윤희식, 송다영, 2007). 취업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맞물려 가족기능의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최희경, 이인숙, 2005). 노인수발에 관한 남녀 불평등 문제(이위환, 권용신, 2005; 정애량, 1999)는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수발자의 여성 편중현상 및 며느리의 지나친 수발부담은 당사자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기능을 손상시킬 뿐 만 아니라, 가족수발 서비스의 효과와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성인남성들이 노부모 수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Folbre(2007)는 돌봄 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면서 가족생활은 더 공고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요보호 노인의 주수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많다(윤은경, 조운득, 2008). 노화(aging)로 인한 부모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의료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노부모를 수발하고 돌보는 일이 성인 자녀들에게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는 대개 중년기 이후이다.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을 병약한 노부모를 위한 가족수발자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사료된다.

2. 노인수발현신

수발현신(care-giving commitment)은 “가족 수발자가 자신의 수발역할에 대한 인지”이다(Meyer, 1993; 장영은 외, 2008 재인용). 부양의식은 부모에 대한 지원과 부양행동에 영향을 준다(서병숙, 이선숙, 신숙, 1991; 송현혜, 1986; 박순미, 2008 재인용). 노부모 수발실천을 실제로 평가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인식은 행동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수발현신을 수발실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로 선택하였다.

노인부양의 개념이 경제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수발 또는 봉양의 개념은 신체적·정서적 측면이 강조된다. 박순미(2008)는 신체적 부양을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체적 부양은 도구적 부양과 서비스적 부양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거동 및 가사운영에 필요한 부축, 간호, 심부름, 청소, 세탁, 요리, 식사, 목욕, 보살핌과 시중 등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신영선, 2004; 조주용, 2004). 각종 수발 서비스는 질병시 시중 뿐 만 아니라,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신체적 부축,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 부양행동을 포함한다. 노인수발현신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명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친밀성과 노부모 수발현신

Cicirelli(1983)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에 의해 형성된 애착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제공되는 도움의 정도 및 미래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Cafferey(1992)도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달라지고, 결속력의 규범과 친교적 관계가 노부모 부양의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족친밀감과 부양의식이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김지영, 2001; 박의순, 1990; Carpenter, 2001)에서 일관성 있게 밝혀진 사실이다(이위환, 권용신, 2005).

일대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상호 작용의 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최혜지, 2004).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을 받은 당사자인 자식(아들)이 자신의 노부모에 대해 가지는 정서와, 자신의 배우자(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자신의 배우자(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갖는 애정에 비해, 성인아들(남편)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정은 훨씬 더 각별할 것이다. 성인아들이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노부모가 수발이 필요할 경우, 병약한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강력한 정서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돌봄역할에 익숙하지 못한 중년남성들이더라도, 수발의 대상이 자신의 노부모일 경우, 부모에 대한 애정이 강 한 만큼 노부모 수발에 참여 할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노인부양의식과의 정적관련성을 보고한 국내 선행연구(조운주, 2002; 이위환, 권용신, 2005 재인용)의 대상은 대부분 대학생이다. 생업이 가장 활발하게 종사하는 시기인 청년기에 있는 부모를 둔 대학생이 보여준 노인부양의식은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까지 확대·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부모 수발문제가 현실문제로 대두되는 중년기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친밀성이 노부모 수발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

4. 수발효능감이 수발현신에 미치는 영향

병약해진 노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 수발을 위한 도구적 역할은 이러한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을 대신해 주어야 한다. 노인수발 현신(care-giving commitment)은 “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명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도구적 활동능력(IADL)은 장보기, 음식만들기, 세탁 청소하기 등 간단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박경숙(2002)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능력 항목에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28.4%, 그리고 도구적 활동 모두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3.5%로 나타났다.

노인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발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적 능력이 요구된다. 수발효능감(care-giving efficacy)은 “수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는 특성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오인석, 구봉진, 1999)이다.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실제로 행동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Bandura, 2001). 따라서 수발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수발업무 수행능력도 높아질 수 있고, 노부모 수발에 대한 현신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수발기술이 부족할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부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애정철회와 같은 적절치 못한 부양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최혜경, 2001)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돌봄 역할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빈약하여 여성에 비해 돌봄 능력이 저조한 편이다. 성년남성들이 병약해진 노부모를 수발하기를 원해도, 수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도구적 기술이 없으면 실제로 수발실천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노부모에 대한 애정 및 친밀성은 노부모를 돌볼 수 있는 수발효능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강화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애정의 대상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려는 동기화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수발효능감이 양호할수록, 수발효능감은 직·간접적으로 노부모 수발현신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5. 노부모의 병약여부와 노부모수발 및 관련요인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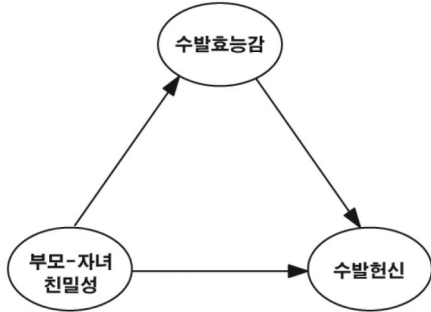
신체기관의 기능이 감퇴되고 통합능력이 결여되어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보살핌을 포함한 서비스 부양의 필요성은 증대된다(송현애, 1987). 선행연구는 부모가 병약해져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저하될수록 성인자녀의 보살핌은 증가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김상욱, 양철호, 1998; 백지은, 2001 재인용; 서소영, 김명자, 1998; 최동희, 1991).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면서 쏟은 헌신에 감사하며 부모에 깊은 애정을 가진 성인자녀들은, 건강이 좋지 못할 경우에도 노부모를 염려(filial concern)하게 된다(김지영, 2001; 김혜경, 2006; 엄명용, 2001; 이위환, 권용신, 2005; 조운주, 2002).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노부모의 병약여부(혹은 건강여부)는 성인자녀의 노부모 수발현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노부모 병약여부가 노부모 수발현신 관련요인들(노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과 연구질문에서 제시한 각 인과관계(causal effect)를 조절하는지를 탐색적 차원에서 함께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성인자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현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효능감을 매개로 노부모 수발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노부모 병약·건강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주요 변인들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대구·경북권내에 소재한 6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부모 중에 한분 이상이 생존해 있는 만 45세-60세 미만의 중년남성들(318명)이다. “중년기를 정의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고 아주 임의적이지만, 중년 남자가 겪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는 매우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약 40-60세 까지를 중년기로 보지만(두산백과사전, 2008),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45세-60세의 중년기의 남성들을 표적 집단(target group)으로 하여 본 연구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6개 대학에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에 의해 1035명의 대학생을 추출하였다. 사전협조를 구하여 수업시간에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아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대학생 자녀(아들, 딸) 들로부터 설문지를 전달받은 아버지(중년남성)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한 총 529부가 회수되었지만, 부모가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199부)는 제외하였다. 기술통계와 모형 분석(AMOS 19)에 사용된 자료는 318명이다.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약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성년자녀-노부모 친밀성

Walker와 Tompson(Fischer & Corcoran, 1994)의 친밀성 척도(Intimacy Scale:IS)의 문항내용중에 사랑, 존중, 개방성(정직성), 소중함과 같은 친밀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문항내용을 선택하였다. 4문항의 내용을 친밀성을 평가하는 측정지표로 선택하였다(표 1). 4점 척도(1 = 아주 그렇지 않은편~4 = 아주 그런 편)이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성년자녀의 노부모와의 친밀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Cronbach- α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925이었다. 개념신뢰도 또는 합성신뢰도(C.R.R: construct reliability/composite reliability)는 .938이었다. 일반적으로 C.R.R이 .5 이상이면 신뢰수준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친밀성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년자녀-노부모 친밀성의 조작적 개념(operational definition)은 “성년자녀가 노부에 대한 사랑, 존중감, 정직성, 그리고 소중함 정도를 느끼는 정도”로 규정하였다.

2) 매개변수: 수발효능감

응답자들의 실제 수발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방법론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중년남성들의 실제 수발실천수준 대신 수발효능감을 평가하였다. 노부모 수발에 필요한 각 해당 수발기술 내용에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지 자기효능감에 근거하여 수발효능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일상생활동작(ADL: activity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정혜(1999)가 개발한 “한국어판” 바텔 지수(Barthel Index) 문항내용(옷입기, 머리빗기, 씻기, 식사, 약바르기, 옮기기, 휠체어 이용 도와주기, 대소변 돕기, 대소변 치우기등)과, 이미애(2006)가 제시한 특정 수발항목(care-giving task)에서 “가래 받아내기” 내용을 추가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6문항을 수발효능감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표 1). 수발효능감의 Cronbach- α 계수는 .912이었으며, C.R.R은 .911으로 매우 좋은 신뢰도를 보였다. 4점 척도로(1 = 아주 못한다~ 4 = 아주 잘 할 수 있다), 척도점수가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수발효능감이 높다. 수발효능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영수가 높을수록 수발효능감 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 수발효능감(care-giving efficacy)의 조작적 정의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3) 종속변수: 수발현신

장영은 외(2008)가 사용한 노부모 수발 현신 척도는 정서적 현신 내용과 함께 규범적 현신 및 계산적 현신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가족 수발자의 경우, 남성인 경우, ‘정서적 현신’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장영은 외, 2008)에 근거하여, 중년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의 노부모 수발현신척도는 정서적 현신에 초점을 두었다.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4 = 매우 그렇다)로 수발현신척도의 측정지표로 선정된 4문항의 내용은 노부모 수발업무에 대한 자부심, 자발성, 가치있는 의미부여, 삶의 보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1). Cronbach- α 계수에 의한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91이고 C.R.R은 .984이었다.

4) 조절변수: 부모병약여부

연구모형의 각 경로의 인과관계가 부모병약·건강여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모건강상태를 묻는 4점척도 문항(1 = 아주 나쁨, 2 = 나쁨, 3 = 보통, 4 = 좋은편)을 더미변수(0 = 아주 나쁨~나쁨, 1 = 보통~좋은편)로 재코딩하여, '부모병약여부'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부모병약여부' 조절변수의 조절효과검증은 부모병약 집단과 부모건강집단간에 각 경로의 인과관계 추정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방법을 선택하였다.

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수발현신 척도는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근거한 신뢰도는 물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에 근거한 수렴(집중)타당도 또한 매우 양호하였다. 각 척도의 평균분산추출(A.V.E)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친밀성은 .984, 수발효능감은 .984, 그리고 수발현신은 .988이었다. 측정모형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chi^2 = 160.968$, $df = 74$, $p = .000$, $TLI = .965$, $CFI = .972$, $RMSEA = .061$; Lo.048, Hi.074). 에서도 각 척도의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표 1).

3.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의 직·간접효과를 부모병약집단과 부모건강집단별로 각각 비교하여,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부모건강·병약여부가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은 측정변인의 오차를 다룰 수 있고,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모형이 실제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는 $RMSEA$, 모형간의 상대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CFI 와 TLI 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부모병약집단, 부모건강집단)비교분석을 위해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집단 구조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고, 계수차이검증을 통해 최적구조모형을 확인하여 두 집단간 경로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간의 잠재변인들(친밀성, 수발효능감, 수발현신)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전제조건인 절편동일성검증을 실시하였고,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한 Sobel, Aroian, Goodman 등의 매개검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매개는 대개 정상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분산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한 매개검증 분석방법이 지닌 한계점을 인식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편향(왜곡)을 수정한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52세 이다. 50-55세 미만(181명)이 절반이 넘는 56.9%를 차지하고 있고, 50세 미만(75명)이 23.6%이고, 55세 이상(62명)은 19.5%이다. 고등학교 학력이 36.8(1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학력이 27%(86명), 대학원 학력이 14.8%(44명), 전문대가 12.3%(39명)이었다. 중학교 학력 또는 그 이하는 10.7%(34명)이다. 절반 이상(53.1%)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0.5%(65명)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5.6%(50명) 정도였다. 다수의 응답자들(63.8%, 203명)은 자신의 경제형편을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노부모 건강이 아주 나쁘거나 9.4%(30명), 나쁜 편(36.5%, 116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46%였으며,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43.7%(139명)이었다. 노부모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10.4%(33명)정도였다. 응답자들 중에서 현재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약 20.8%(66명)정도였다. 본 표본특성도 과거에 비해서 성년자녀들의 부모동거비율이 급감하고, 독거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응답자의 연령, 학력 및 경제형편이 적절한 분포를 보여, 표본추출이 비교적 타당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

2. 변수간의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자료가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추정치와 적합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관측한 변수들(11개)의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091 \sim -.525$ 로 절대값이 2미만이다. 첨도는 $-.022 \sim .1748$ 로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서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분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AMOS로 측정된 다변량 결합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의 결합 통계량은 50.420이고, *C.R*(critical ratio) 값은 21.240을 나타내어 모형에 첨가된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이룬다는 가설을 기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 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변량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료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배병렬, 2007).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195 ~ .798로 0.8을 넘지 않아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각 잠재변수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친밀성과 수발효능감(.377), 수발효능감과 수발현신(.357), 그리고 친밀성과 수발현신(.490)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고,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연구모형 변수간의 가설적인 경로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측정모형분석

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수발현신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으로 다중지표를 사용하였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 적재값(λ 값)이 .721 ~ .887 사이이고, *C.R* 값이 12.930 ~ 22.023이며, *p*값은 모두 .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중상관지승값(.559 ~ .786)도 모든 측정모형의 개별항목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았다($\chi^2 = 160.968$, *df* = 74, *p*.000, *TLI* = .965, *CFI* = .972, *RMSEA* = .061; Lo.048, Hi.074). 잠재변인이 측정모형의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관측변수들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집중타당성/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높다. 모든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정적방향(+)이고, 유의성이 뒷받침되어, 법칙타당(nomological validity)도 인정된다.

4. 구조모형분석

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현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수발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2>, <그림 2>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모형에서 포함한 세 경로 즉, 친밀성이 수발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경로계수 = .405, *CR* = 6.783 *p*.001),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 현신에 미치는 경로(경로계수 = .219, *CR* = 3.653, *p*.001),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성이 부모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경로계수 = .443 *CR* = 7.08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노부모와의 친밀성은 수발효능감과 노부모수발현신에 각각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 노부모와 친밀성이 높을수록 수발효능감이 증가하고(.405), 수발효능감이 좋을수록 노부모 수발현신수준도 높고(.219), 노부모와 친밀할수록, 노부모수발에 현신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443)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친밀성은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성년자녀와 노부모와의 친밀성, 애착이 노부모 부양과 정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김지영, 2001; 조윤주, 2002; Cafferey, 1992; Carpenter, 2001; 이위환, 권용신, 2005 재인용; Cicireli, 1983)와 합치한다. 중년남성들의 수발효능감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를 위한 수발현신수준도 향상되는 것

<표 1>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다중상관지승치(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i>C.R/P</i>	다중상관 지승 R^2
깊이 사랑함 ← 친밀감	.915	.795	.058	15.885***	.786
아주 친함 ← 친밀감	.963	.792	.061	15.811***	.684
아주 존경함 ← 친밀감	1.046	.864	.059	17.664***	.775
더없이 소중한 ← 친밀감	1.000	.825			.776
자부심 가짐 ← 수발현신	.979	.887	.044	22.023***	.632
스스로 자원 ← 수발현신	.978	.881	.051	19.324***	.628
중요한 의미 ← 수발현신	1.090	.827	.050	21.736***	.742
삶의 보람 ← 수발현신	1.000	.887			.681
웃벳고입히기 ← 수발효능감	1.145	.810	.082	14.029***	.657
단장 ← 수발효능감	1.183	.884	.077	15.275***	.781
목욕 ← 수발효능감	1.213	.815	.086	14.105***	.664
식사·약 관리 ← 수발효능감	.933	.796	.063	13.787***	.634
몸 옮기기 ← 수발효능감	.839	.748	.065	12.930***	.559
배설물관리 ← 수발효능감	1.000	.721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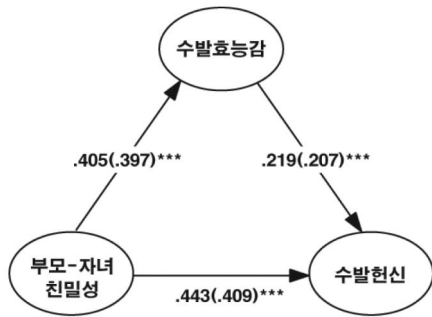
*** *p* < .000

〈표 2〉 연구모형의 경로추정치

	표준화		비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P
수발효능감 ← 친밀성	.405	.397	.059	6.783 ***
수발현신 ← 수발효능감	.219	.207	.057	3.653 ***
수발현신 ← 친밀성	.443	.409	.058	7.082 ***
[간접효과]		유의도(P)	하한값, 상한값	
수발현신 ← 수발효능감 ← 친밀성	.089	.002	(.031, .154)	

*** $p < .001$

으로 밝혀져, 수발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발효능감의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164이었으며, 수발현신의 다중상관자승치는 .324였다. 즉, 부모와의 친밀성은 수발효능감을 16.4%를 설명할 수 있고,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 두 잠재변인이 종속변수인 수발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2.4%로 상당히 높아, 중년남성들의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현신에 매우 요인들이라는 사실에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5. 인과관계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검증

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현신에 미치는 총효과는 .532이다. 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현신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443이고 간접효과는 .089이다. 즉, 수발효능감은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현신과의 관계에서 83.3%의 직접효과를 유지하면서 16.7%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남성들이 수발에 필요한 수발기술에 대한 능력이 없을 경우, 노부모를 수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표 3〉 Sobel, Aroian, Goodman 검증에 의한 간접효과 결과

	Input	test	Test statistic	p-value
a	0.397	Sobel test	3.19583908	0.0013945
b	0.207	Aroian test	3.16885369	0.0015304
S _a	0.059	Goodman test	3.22352583	0.0012662
S _b	0.057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남성들이 자신의 노부모 수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발기술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모와의 친밀성이 부모수발현신에 영향을 주는데, 수발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계산된 검증통계량과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할 경우 Z = 1.96이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Sobel, Aroian, Goodman 검증에서 모두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동시에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벗어나기 쉽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 strapping)도 함께 실시하여 간접효과(.089)의 유의성($p = .002$; 95% 신뢰구간 하한값 .031, 상한값 .154)을 재확인하였다(표 2).

6. 부모병약 · 건강여부에 따른 구조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비교

두 집단 간의 각 경로계수차이 검증을 위해서, 먼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적합도가 매우 양호하였다($\chi^2 = 247.555$, $df = 148$, $p = .000$, $TLI = .961$, $CFI = .968$, $RMSEA = .046$). 두 집단 비교분석의 전제조건인 측정동일

〈표 4〉 모형비교

	모형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판정
기저모형	247.555	148	.000	.961	.968	.046	채택
측정동일성모형	259.756	159	.000	.963	.968	.045	채택
구조동일성모형(1)	260.081	160	.000	.963	.968	.044	채택
구조동일성모형(2)	262.099	161	.000	.963	.967	.045	채택
구조동일성모형(3)	266.277	162	.000	.962	.966	.045	기각
절편동일성모형	268.804	173	.000	.968	.969	.046	채택

성을 검증하였다. 자유도차이 11에서 임계치(19.68, 유의도 .05수준)보다 카이제곱치 차이값($\Delta\chi^2 = 12.201$)이 적어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었다(표 4).

2) 집단간 계수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test)

두 집단(부모병약집단, 부모건강집단)간의 각 경로추정치 비교를 위해서, 최적구조동일성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수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에 계수차이가 가장 적은 경로를 시작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한 뒤에 다시 모형을 검증한 후, 그 모형에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였다. 구조동일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표 5>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조동일화(2)모형을 최적구조모형을 확정하였다.

3) 잠재변인의 평균비교 분석결과

노부모 병약집단과 노부모 건강집단간의 세 잠재요인(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수발현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인 절편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자유도차이 14에서 임계치(23.69, 유의도 .05수준)보다 카이제곱치 차이값($\Delta\chi^2 = 9.048$)이 적어 절편동일성이 인정되었다(표 4 참조).

잠재평균은 요인의 평균을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다. 부모건강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세 잠재변인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즉, 중년남성들의 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그리고 노부모를 위한 수발현신수준은 노부모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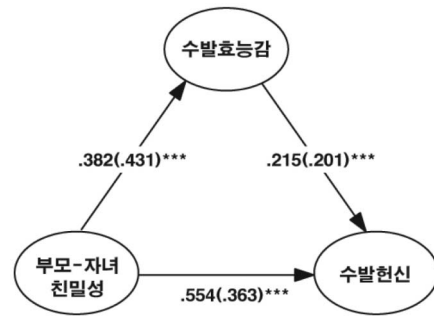
이는 노부모가 병약한 경우에도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현신수준이 노부모가 건강한 집단보다 더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발효능감 수준 및 부모와의 친밀성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분석결과는 노부모가 병약해져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저하될수록 성인자녀의 보살핌은 증가된다(김상욱, 양철호, 1998; 백지은, 2001; 신영선, 2004 재인용; 서소영, 김명자, 1998; 최동희, 1991)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잠재변인의 잠재평균 차이분석

최종모형 결과	평균차이 (평균오차)				
	건강집단	평균	표준오차	병약집단 C.R	유의도(p)
친밀성	0	-.016	.069	-.227	.820
수발효능감	0	-.002	.063	-.025	.980
수발현신	0	-.049	.063	-.782	.434

4) 노부모 병약집단 · 노부모건강집단 구조모형비교

모형에서 설정한 세 경로(친밀성 → 수발효능감, 수발효능감 → 수발현신, 친밀성 → 수발현신)는 모두 유의성(p.000)이 검증되었다. 두 집단 모두, 노부모와 친밀성은 수발효능감과 수발현신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수발효능감과 수발현신도 정적상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단의 각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3>, <표 7>의 내용과 동일하다.



*** $p < .001$ ** $p < .01$ * $p < .05$
 각 경로위에 적힌 숫자는 노부모 병약집단의 표준화 추정치이며, ()속은 노부모 건강집단의 표준화 추정치임.

<그림 3> 노부모병약집단과 노부모건강집단 구조모형 비교 분석

앞서 계수차이검증 <표 5>에서, ‘부모와의 친밀성 → 수발현신’ 경로에서만 유일하게 두 집단 간의 추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부모가 건강한 집단에서는 이 경로의 추정치가 .363이었지만, 부모가 병약한 집단에서는 경로추정치가 .554로 월등이 더 높은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7).

노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노부모가 건강한 집단에서보다 노부모가 병약한 집단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노부모가 건강한 집단에 비해, 노부모가 병약한 집단에

<표 5> 경로계수차이 검정 결과(t-값)

단계	수발현신 → 친밀성	수발효능감 → 친밀성	수발현신 → 수발효능감
구조동일화 모형(1)	2.474	<u>.571</u>	-1.446
구조동일화 모형(2)	2.470		<u>-1.424</u>
구조동일화 모형(3)	<u>2.048</u>		

* 각 단계에서 진한 숫자(t 값)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를 표시한 것임.

〈표 7〉 최종 구조화모형의 노부모 병약집단과 노부모 건강집단의 경로추정치

최종모형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추정치	
	건강집단평균(SE)	병약집단평균(SE)	건강집단	병약집단
수발효능감 ← 친밀성	.400***	.058	.400***	.058
수발헌신 ← 친밀성	.357***	.079	.357***	.079
수발헌신 ← 수발효능감	.215***	.061	.215***	.061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헌신 ← 효능감 ← 친밀성	.087	.082	.005 (.037, .166)	.005 (.035, .157)

*** $p < .001$, ** $p < .01$, * $p < .05$

서 노부모와의 친밀성정도가 부모를 위한 수발헌신에 월등히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7). 노부모가 병약할 경우, 특히 부모와의 친밀성수준이 노부모를 수발헌신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노부모 병약(건강)여부는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정도가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부모병약집단의 경우, 수발효능감의 다중상관자승치(SMC)는 .146, 수발헌신의 다중상관자승치는 .445이었고, 부모건강집단의 경우는 수발효능감의 다중상관자승치는 .186이고, 수발헌신의 다중상관자승치는 .235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친밀성이 수발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두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지만,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 두 변인이 노부모 수발헌신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부모건강집단에서 보다 부모병약집단에서 월등히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7). 이는 노부모가 건강할 때 보다는, 노부모가 병약할 경우에, 중년남성들이 노모와 친밀성을 유지하고 수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수발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노부모 수발에 헌신을 유도할 있는 보다 효과적인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발견점과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노부모를 위한 가족수발자의 여성편중현상은 단순히 역할분담의 공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수발의 질과 효과측면에서도 역기능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가족수발자들 중에서 주변인(marginal member)이었던 중년남성이 노부모 수발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노부모에게 필요한 가족수발서비스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노부모 수발이 현실문제로 대두되는 중년기의 남성(45세-60세 미만, 부모 1명이상 생존)들을 대상(318명)으로, 노부모 수발헌신(care-giving commitment)에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규명하고, 노부모 병약·건강여부가 각 변인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경로모형분석(AMOS 19)를 하였다. 노부모 병약집단과 노부모 건강집단간에 모형의 각 경로추정치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다집단분석, 계수차이검증, 구조동일화모형검증,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한 Sobel, Aroian, Goodman 등의 검증과 함께,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와 친밀성 → 수발효능감(.405), 수발효능감 → 수발헌신(.219), 그리고 노부모와 친밀성 → 노부모수발헌신(.443), 이 세경로는 모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와의 친밀성이 높을수록 노부모 수발헌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선행연구(조운주, 2002; Caffery, 1992; Carpenter, 2001; 이위환, 권용신, 2005 재인용; Cicireli, 1983)와 합치하였다. 부모와의 친밀성은 노부모 수발헌신과 수발효능감을 모두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친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헌신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표 7). 수발업무능력은 수발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다. 분석결과, 중년남성들의 수발효능감은 노부모 수발헌신 수준을 높이는 직접효과 뿐 만 아니라 부모와 친밀성이 수발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수발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3).

둘째, 부모와의 친밀성, 수발효능감, 수발헌신수준은 부모 병약집단과 부모건강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6). 부모가 병약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낮아질수록 성인자녀들의 보살핌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김상

육, 양철호, 1998; 백지은, 2001; 신영선, 2004 재인용; 서소영, 김명자, 1998; 최동희, 1991)의 선행연구와는 상치된다. 노부모가 건강한 경우보다도 노부모가 병약할 경우, 노부모를 위한 수발현신수준은 물론, 수발효능감 및 부모에 대한 애정 및 친밀감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의 병약(혹은 건강)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가 병약할 경우, 증대되는 수발욕구에 중년남성들은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가족수발자(예: 며느리, 딸 등)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셋째, 모형에서 설정한 세 경로중에, ‘부모와의 친밀성 ↔ 수발현신’에 미치는 경로에서만 유일하게 노부모 병약집단과 노부모 건강집단간에 추정치 차이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표 5), (표 7). 노부모 건강집단(363)에 비해서, 노부모 병약집단(554)의 경우, 부모와의 친밀성이 높을수록 노부모 수발현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즉, 부모가 병약할 경우, 중년남성들이 노부모 수발에 현신하는 수준은 노부모와의 친밀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표 6)에서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 수준은 노부모가 병약한 경우나 건강한 경우나 실제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6). 노부모가 병약해져 성인자녀의 수발을 더욱 더 필요로 할 때, 중년남성들은 노부모의 욕구와 필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부모 수발현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부모와의 친밀성 향상 및 수발효능감 향상 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병약한 노부모의 가족수발자로 중년남성(아들)인력의 활용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넷째, 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현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부모건강집단(다중상관자승치, .235)에 비해, 부모병약 집단에서 그 설명력이 월등히 더 높았다(다중상관자승치, 445). 이것은 노부모가 건강할 때 보다는 노부모가 병약할 경우, 노부모와의 친밀성 또는 수발효능감의 향상을 통하여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현신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노부모와의 친밀성 향상 및 수발효능감 향상 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병약한 노부모를 위한 중년남성(아들)의 수발현신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가족수발자로 중년남성(아들)인력 활용에 대한 기대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 논의한 주요 발전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년남성들이 수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많은 중년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돌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경험이 부족하다.

박순미(2008)는 노부모를 가진 성인자녀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체수발 및 간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수발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년남성들의 수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발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소집단교육을 통해 수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적인 실습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부모 수발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중년기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조집단의 구성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연령대와 직업활동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차별성을 두고, 프로그램 운용시간도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하여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년남성들을 위한 가족수발 서비스 교육 및 훈련은 아직까지 일반인들 사이에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행정관청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병약해진 노부모를 수발하는 일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별한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사랑, 의무, 호혜의 가치가 전이(spill-over)되는 젠더를 초월하는 돌봄역할이라는 인식이 성인남성들에게 확대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성 가족수발자로 봉사하고 있는 남성들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격려하고, 이들의 긍정적인 이야기와 경험을 일반 남성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론포도, 강좌등)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와의 친밀성 및 정서적 유대는 노부모 돌봄의 선행조건이다. 노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및 친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 뿐 만 아니라, 노부모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원들이 전문기관(예: 가족치료소, 복지관, 상담소, 건강가정 지원센터등)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 정서상, 가족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고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므로 지역단위로 필요한 전문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 간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사

소통훈련, 부모-자녀 결속강화프로그램, 세대 간 가족치료 등)개발과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이 축적되어 나감으로써, 노부모를 돌보는 수발에 지금까지 주변인 역할에 머물렀던 중년남성들이 젠더(gender)를 초월한 노부모 수발역할의 공유가 확대될 때, 여성편중 가족수발이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예: 가족수발서비스의 질의 저하, 가족수발중단, 노부모 시설진입, 부부갈등 등)을 예방·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돌봄 역할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이 비교적 강한 지역인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45세~60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하는 기혼중년남성들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의 의미도 있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부모가 1명 이상 생존해 있는 중년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수발 경험유무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다른 가족 수발자들과의 비교연구를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명백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중년남성들의 노부모 수발현신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진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년남성들을 노부모 수발을 위한 가족수발자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개척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권중돈(1994).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욱, 양철호(1998).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5(8), 51-83.
- 김지영(2001).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3세대 가족과 핵가족의 각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관계적 특성의 차이. **사회복지정책**, 27, 55-77.
- 두산백과사전(2008). 서울: 동아출판사.
- 박경숙(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노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적 보호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완적 관계인가?. **한국노년학**, 22(1), 241-260.
- 박순미(2008). 노인부양유형과 부양서비스의 모형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제(2006).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휴식보호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2(여름호), 295-326.
- 박현정, 최혜경(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노인의 노후 부양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3.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지은(2001).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른 노부모 부양자의 부양행동 및 심리적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현숙, 류삼희(2007).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7(1), 195-211.
- 서소영, 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39-50.
- 송다영(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 송현애(1987).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선(2004). 맞벌이부부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및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이재경, 김인숙, 윤희식, 송다영(2007). **가족복지 정책과 실천**, 경기: 공동체.
- 엄명용(2001).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원)가족관계 양상 분석 및 개입전략의 제시. **한국사회복지학**, 47, 206-242.
- 오인석, 구봉진(1999). 자기효능감 측정의 비판 및 대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0(2), 36-37.
- 우국희(1997). 치매노인 수발인의 수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 - 가족갈등과 부정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0, 383-413.
- 윤수경(1991). 재가치매성 노인 보호제공자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 조윤득(2008). 부양자의 죄책감이 수발도움 요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4), 1249-1264.

- 윤현숙(2001). 노인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141-161.
- 윤현숙, 류삼희(2007).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7(1), 195-211.
- 이가옥, 이미진(2000). 가족이 수발하는 장기요양보호노인의 보호욕구 사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255-275.
- 이미애(2006). 주부양제공자의 하위집단별 부양부담 및 특정 수발항목에 대한 부담도. **노인복지연구**, 33, 279-300.
- 이민홍, 윤은경(2008). 요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대처기술이 수발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31-54.
- 이위환, 권용신(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억식이 노인부양억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 165-178.
- 이원준(2009).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현신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독일의 공적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한국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족과 문화**, 14(3), 131-161.
- 장영은, 엄기옥, 김정숙, 나카지마 가즈오(2008). 요보호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원의 수발현신척도 개발 및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42, 79-98.
- 정경희, 조애지, 오영희, 변재관, 변유찬, 문현상(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애량(1999). 여성의 취업과 노인부양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대응방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1-17.
- 조병은, 신화용(2004). 노모부양에 대한 성인자녀의 공평성 지각 및 이익에 따른 관계의 질: 공평성 이론에서 본 한국과 재미교포사회의 비교. **한국노년학**, 24(3), 231-247.
- 조운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 최동희(1991).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 부양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최혜경, 문숙재, 정순희, 김은경(2001). 노인부양지표개발: 노인부양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부양모형 제시. **여성건강**, 2(1), 99-119.
- 최혜지(2004). 가족수발자의 서비스 욕구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81-303.
- 최희경, 이인숙(2005).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5, 245-283.
- Bandura, A.(2001).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W.H. Freeman & Company.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교육 · 건강 · 운동 · 조직에서의 성취). 박영신, 김의철(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7년 원저발간).
- Cafferey, R. A.(1992). Caregiving to the elderly in Northeast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7, 117-134.
- Carpenter, B. D.(2001). Attachment bonds between adult daughters and their older mother: Associations with contemporary caregiv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56(5), 257-266.
- Cicirelli, V. 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815-825.
- Fischer, J., & Corcoran, K.(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2nd edition.) Vol.1. Couple, Families, and Children, THE FREE PRESS.
- Folbre, N.(2007). *THE INVISIBLE HEART*. 보이지 않는 가슴, 또 하나의 문화. 윤자영(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2001년 원저발간)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s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55.

접 수 일 : 2011년 8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19일